

## 雪岳山 國立公園 地域住民의 觀光影響 知覺\*

姜美姬<sup>1</sup> · 金星一<sup>1</sup>

###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on Soraksan National Park\*

Mi-hee Kang<sup>1</sup> and Seong-il Kim<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국립공원 지정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를 검증하였다. 1997년 11월과 12월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3명의 설문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긍정적, 부정적인 환경적, 경제적 관광영향을 모두 지각하는 한편, 사회적 관광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 지각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적인 관광개발을 선호하며 설악산 보전을 위한 이용자 수 제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은 연령, 학력, 직업과 관광의 관련 여부, 거주지, 거주기간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residents' attitudes toward national parks and to identify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and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ir response. In winter of 1997, 153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households within Soraksan National Park boundary. The residents perceiv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tourism, however, they were reluctant to attribute social costs to tourism. Despite some negative tourism impacts, most of the residents supported additional tourism development and disagreed to limit the number of visitors. Their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were varied with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dependency on tourism, place of residence, and length of residence.

*Key words* : Tourism impact, national park,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Soraksan

#### 서 론

관광산업은 관광 대상 지역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것은 관광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책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유형 혹은 수준의 관광개발이냐에 상관없이 관광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영향을 비롯해 유무형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야기한다(Pizam, 1978; Thomason, Crompton, and Kamp, 1979; Brougham and Butler, 1981; Sheldon and Var, 1984; Pizam and Milman, 1986; Martin

\* 接受 1998年 9月 3日 Received on September 3, 1998.

<sup>1</sup>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Dep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441-744, Korea

and Uysal, 1990 ; Ross, 1992). 환경훼손(Liu, Sheldon, and Var, 1986), 토지 가격과 물가의 상승(Long, Perdue, and Allen, 1990), 지역주민의 가치관 및 생활방식 변화(Haralambopoulos and Pizam, 1996), 교통혼잡(Johnson, Snepenger, and Akis, 1994), 매춘이나 범죄(Farrell, 1979)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개발이 지역사회 특히 저개발 지역에 경제발전 을 가져온다는 단순한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한병선, 1995).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actual) 영향과 지각된(perceived)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둘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Belisle and Hoy, 1980). 지각된 영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 자료만으로는 관광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들이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광으로 인한 고용기회 증가나 범죄 증가 등은 2차 자료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만 문화적 자긍심 증대나 가치관의 변화같은 관광영향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다. 또한 실제 영향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관광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은 실제의 객관적 영향보다 지역주민의 지각에 의한 주관적 영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반응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는 관광의 기반인 동시에 관광객이 가지게 될 관광 경험의 질(質)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각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그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관리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은 일반 관광지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관광영향 하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 까지 총 20개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우리 나라 국립공원은 애초 국립공원 개념의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대량관광지화로 인하여 그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생태적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경빈 등, 1994). 한 해에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환경적 영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국립공원 구역 내에 거주지가 존재하는 경우, 주민들이 받게 되는 관광의 영향은 어느 일반 관광지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이라는 또다른 제도적 제한 속에 처해 있으므로 일반 관광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경계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의 관광개발 수준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현재의 관광 수준에서 야기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립공원을 이용한 지역 관광산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현재의 국립공원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광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립공원 지정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한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주민들이 국립공원 관광이 야기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관광의 여하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다. 삶의 질(Allen *et al.*, 1988), 지역주민들의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거주기간 혹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Thomason, Crompton, and Kamp, 1979 ; Belisle and Hoy, 1980 ; Broughman and Butler, 1981 ; Liu, 1986 ; Liu, Sheldon, and Var, 1987 ; Milman and Pizam, 1988), 그리고 관광 개발 수준(Hills and Lundgren, 1977 ; Long, Perdue, and Allen, 1990 ; Allen *et al.*, 1993 ; Madrigal, 1993 ; Johnson, Snepenger, and Akis, 1994)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이 연구되어 왔다.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서 다양한 이론의 접목도 시도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관광개발사이클모형(tourism development cycle model), 세분화 접근(segmentation approach) 등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으로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다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App(1992)는 사회교환이론이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기대되는 편익과 지불해야 할 비용의 관점에서 관광을 평가한 후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용기회창출 등은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차적인 편익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데, 경제적 다양성의 부족, 인플레이션, 생태계 파괴, 매춘, 범죄, 적대감 등이 그것이다(Farrell, B., 1979). 즉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평가될 때,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개발 정도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개발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lls and Lundgren, 1977; Long, Perdue, and Allen, 1990; Allen *et al.*, 1993; Madrigal, 1993; Johnson, Snepenger, and Akis, 1994). Nemethy(1990)는 이를 환영(welcome), 개발(development), 분개(resentment), 대치(confrontation), 파괴(destruction) 등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Doxey(1976)는 행복감(euphoria), 냉담(apaty), 분노(annoyance), 적대감(antagonism), 그리고 최종단계(final level) 등의 5단계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였다(그림 1). 이때 최종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이 변하도록 허용하며 처음에 품었던 감정을 잊게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는 물론 관광객 유형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인자로 수용력(carrying capacity) 개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즉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수용력이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관광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Long, Perdue, and Allen, 1990; Madrigal, 1993). 임계점은 많은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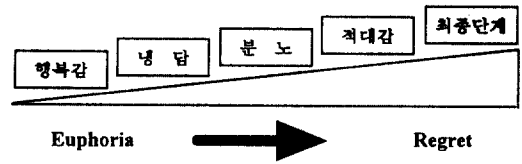


그림 1. Doxey의 Irridex Model

측정가능한데(Hills and Lundgren, 1977), Long 등(1990)은 소매 판매고(retail sales)의 30% 이상이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점을 사회적 수용력의 한계점으로 보고하였다.

Wall(1983)은 관광개발사이클모형에 대한 고찰에서, 동일한 관광산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관광에 대하여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Lankford와 Howard(1994) 역시 Doxey의 Irridex 모델 등이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분화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주요관광지점과의 거리 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Thomason, Crompton, and Kamp, 1979; Belisle and Hoy, 1980; Broughman and Butler, 1981; Liu, 1986; Liu, Sheldon, and Var, 1987).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은 관광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Broughman and Butler, 1981; Madrigal, 1993), 관광객 구역(tourist zone)에 더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광객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지각한다(Belisle and Hoy, 1980). 또한 관광객과의 상호작용 정도(Thomason, Crompton, and Kamp, 1979; Liu, 1986),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Liu, 1986; Liu, Sheldon, and Var, 1987) 등에 따라 서로 관광에 대한 태도와 지각은 달라진다. 물론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Davis 등(1988)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관광객에 대한 태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Bastias-Perez와 Var(1995)의 연구에서도 학력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등 연구 대상지 혹은 상황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론적 틀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관광 개발의 어떤 단계에서든 비용과 편익

분석은 이루어지며 동시에 그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 혹은 처한 환경에 따라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관광개발이 심화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역주민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혹은 영향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을 적절히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 접근은 서로 상충된다기보다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지 및 자료수집방법

우리 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 국립공원은 북한산 및 지리산 국립공원과 더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공원 경계 내 거주 가구 수에 있어서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큰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970년 우리 나라 제5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 속초시의 3개 동(노학동, 도문동, 설악동)과 고성군 토성면, 인제군의 북면, 양양군의 서면과 강현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60가구(국립공원관리공단, 1997)가 공원 경계 내에 살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외설악의 관리사무소 본부 외에 몇 곳에 분소를 두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은 관리사무소 본부와 백담, 오색, 장수대 등의 3개 분소를 중심으로 속초시의 설악동, 인제군의 용대 2리와 한계리, 양양군의 오색리 정도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는 설악동, 용대 2리, 한계리, 오색리 등 관리사무소(매표소)에서 가장 인접한 거주지를 중심으로 1997년 11월 29

~30일, 12월 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만 18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 각 가구 당 한 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일련의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이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7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4부를 제외한 15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관광영향척도 항목 선정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의 선정은, Lankford와 Howard(1994)에 의해 개발된 관광영향태도척도(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TIAS)와 관련문헌(Liu and Var, 1986; Long, Perdue, and Allen, 1990; Johnson, Snepenger, and Akis, 1994; Haralambopoulos and Pizam, 1996)에서 항목들을 도출하여 총 22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표 2).

##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46.4%로 나타났다.

### 2. 설악산의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방향에 대한 태도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표 1.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 성	백 분 율
성 별	남자(45.1%) 여자(54.9%)
연 령	20대(11%) 30대(31.1%) 40대(21.3%) 50대(17.3%) 60대 이상(19.3%)
학 령	중졸 이하(35.1%) 고졸(45%) 대졸(2%) 대졸 이상(17.9%)
직 업	농업(9.2%) 상업(46.4%) 회사원/공무원(17.6%) 가사(8.5%) 무직(6.5%) 기타(11.8%)
소 득	100만원이하(31.9%) 100~150만원(35.5%) 150~200만원(18.7%) 200~300만원(8.3%) 300만원이상(5.6%)
거주기간	10년미만(32.9%) 10년~20년미만(23.7%) 20년이상(43.4%)
거 주 지	외설악지구(63.4%) 백담사지구(15.7%) 오색지구(11.1%) 장수대지구(9.8%)

표 2.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관 광 영 향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환경적 영향	회귀식물 훼손	3.51	1.10
	회귀동물 및 조류 피해	3.33	1.11
	쓰레기 증가	4.38	.91
	소음 수준 심각	2.99	1.22
	경관 파괴	3.35	1.22
	도로정비	2.99	1.11
	대중교통 늘어나 이동 편리	2.64	1.07
경제적 영향	일자리 공급	3.17	1.14
	가계소득 증대	3.19	1.12
	생활수준 향상	3.25	1.04
	소비품조 확산	3.21	1.14
	물가 상승	3.79	1.05
	일부 지역주민만 소득 올림	3.43	1.05
	세금 증대	2.90	1.01
사회문화적 영향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 미침	2.93	1.19
	범죄 증가	2.53	1.13
	전통행사 사라짐	2.59	1.02
	관광객과의 빈부격차 느낌	3.18	1.19
	토착민이 떠남	2.56	1.06
	전통생활방식 변화	2.96	1.06
	공동체 의식 붕괴	3.23	1.17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불편 야기	2.68	1.06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4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설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적 차원(71.9%)에서나 지역 사회 차원(57%)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립공원 개념에 상응하는 "보전을 위한 관광객 수 제한"에 대해서 주민의 70% 정도가 반대하는 반면, "집중적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약 80% 정도의 주민이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국립공원을 하나의 관광지로만 지각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국립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Doxey의 Irridex 모델을 통해 보았을 때,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산업 혹은 관광 개발은 지역주민에게 있어 아직도 환영(euphoria)의 대상으로 보인다.

### 3.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은 크게 환경

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회귀식물 훼손"과 "회귀동물 및 조류의 피해" 그리고 "경관 파괴"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는 그중 가장 심각한 환경영향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반면 "도로정비"와 "대중교통 증가로 인한 이동 편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은 크게 지각되고 있지 않았다.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서, 지역주민들은 "일자리 공급", "가계소득 증대", "생활수준 향상" 등의 편익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소비품조 확산"이나 "물가 상승", "일부 지역주민만 소득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크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세금 증대"는 크게 지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관광영향 중에서 "관광객과의 빈부격차를 느낀다"거나 "공동체 의식 붕괴" 등은 비교적 강하게 지각되는 반면 나머지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 지각 수준은 매우 낮았다.

**4.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관광 영향 지각 비교**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학력, 직업의 관광 관련 여부, 거주지, 거주기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표본 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연령을 20~35세, 36~50세, 51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관광영향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ANOVA)으로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51세 이상의 노년층은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지각하지만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은 지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관광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20~50대의 젊은 층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를 크게 지각하고 있다.

표 3. 연령층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항 목	평 균	응답집단 <sup>1</sup>	F값	다중비교 <sup>2</sup>
도로정비	2.75	20~35세	3.703*	A
	2.88	36~50세		A
	3.33	51세이상		B
회귀동물, 조류 피해	3.58	20~35세	3.914*	A
	3.35	36~50세		A B
	2.96	51세이상		B
소음 수준 심각	3.21	20~35세	8.541***	A
	3.30	36~50세		A
	2.42	51세이상		B
대중교통 늘어나 이동편리	2.42	20~35세	3.529*	A
	2.54	36~50세		A B
	2.96	51세이상		B
일자리 공급	3.51	20~35세	4.101*	A
	3.16	36~50세		A B
	2.84	51세이상		B
소비품조 확산	3.58	20~35세	6.260**	A
	3.19	36~50세		A B
	2.78	51세이상		B
물가 상승	3.91	20~35세	5.519**	A
	4.08	36~50세		A
	3.42	51세이상		B
가계소득 증대	3.47	20~35세	3.138*	A
	3.18	36~50세		A B
	2.90	51세이상		B
공동체의식 붕괴	3.55	20~35세	3.812*	A
	3.33	36~50세		A B
	2.90	51세이상		B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	3.29	20~35세	8.623***	A
	3.16	36~50세		A
	2.40	51세이상		B
범죄 증가	2.95	20~35세	5.838**	A
	2.49	36~50세		B
	2.18	51세이상		B

\*, \*\*, \*\*\* : 5%, 1%, 0.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sup>1</sup>: 20~35세=45명, 36~50세=50명, 51세 이상=50명

<sup>2</sup>: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표 4. 학력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항 목	평 균	응답집단 <sup>1</sup>	F값	다중비교 <sup>2</sup>
도로정비	3.29	중졸이하	3.325*	A
	2.85	고 졸		A B
	2.72	대재이상		B
희귀동물, 조류 피해	2.85	중졸이하	8.575***	A
	3.65	고 졸		B
	3.43	대재이상		B
소음 수준 심각	2.62	중졸이하	3.704*	A
	3.18	고 졸		B
	3.18	대재이상		B
일자리 공급	2.89	중졸이하	3.291*	A
	3.22	고 졸		A B
	3.53	대재이상		B
소비품조 확산	2.88	중졸이하	4.106*	A
	3.48	고 졸		B
	3.17	대재이상		A B
물가 상승	3.48	중졸이하	4.442*	A
	4.04	고 졸		B
	3.83	대재이상		A B

\*, \*\*, \*\*\* : 5%, 1%, 0.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sup>1</sup> : 중졸이하=53명, 고졸=68명, 대재 이상=30명

<sup>2</sup> : 단건의 다중비교 결과

표 5. 직업의 관광관련여부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항 목	관련없음 (n=49)	관련있음 (n=100)	t값
일자리 공급	2.90	3.31	-2.101*
가계소득 증대	2.81	3.41	-3.158**
생활수준 향상	2.88	3.46	-3.048**

\*, \*\*: 5%, 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2) 학력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중졸 이하의 지역주민들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크게 지각하지 않는 반면 '도로정비'같은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는 주로 고졸 이상의 주민들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여 저학력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직업의 관광 관련 여부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지역주민의 직업과 관광의 관련정도는 "전혀 관련 없다"(1점)부터 "매우 관련 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항목을 다시 "관련 있음"과 "관련 없음"의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그저 그렇다"(3점)로 응답한 이용자는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두 관광의 경제적 영향으

로, "일자리 공급", "가계소득 증대", "생활수준 향상" 등이었다. 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관광으로 인해 편익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의 경우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집단과는 달리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라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t = -2.14$ ,  $p = .035$ )이었다.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이 지불하게 될 비용보다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거주지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사회를 크게 설악동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악동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와 물리적 관광개발수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거주지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9개 항목 중, "도로정비" 및 "대중교통 편리"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긍정적, 부정적인 7개 항목에서

표 6. 거주지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항 목	설악동(n=97)	기타 지역(n=56)	t값
소음 수준 심각	3.17	2.68	-2.311*
도로정비	2.80	3.31	2.786**
대중교통 늘어나 이동 편리	2.49	2.88	2.126*
가계소득 증대	3.35	2.93	-2.254*
일자리 공급	3.45	2.68	-4.274***
소비품조 확산	3.35	2.96	-2.016*
물가 상승	3.97	3.50	-2.692**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	3.17	2.52	-3.347***
범죄 증가	2.70	2.25	-2.414*

\*, \*\*, \*\*\* : 5%, 1%, 0.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7. 거주기간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차이

항 목	국립공원지정전부터 거주한 주민(n=40)	국립공원지정 이후 거주한 주민(n=112)	t값
일부 지역주민만 소득올림	3.83	3.29	-3.126**
대중교통 늘어나 이동 편리	3.13	2.47	-3.409***

\*\*, \*\*\* : 1%, 0.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는 설악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 영향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Doxey의 Irridex 모델 등에서는 관광개발이 심화 될수록 지역주민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경우, 더 많이 개발되었고 전체 설악산 관광객 중 대부분이 방문하는 설악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타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 분석에서, 설악동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관광영향을 전반적으로 크게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 현재 수준의 관광이 비용보다 편익을 더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은, 외설악 지역에서의 관광개발 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환영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설악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국가적 차원( $t = -2.75, p = .007$ )에서나 지역적 차원( $t = -3.34, p = .001$ )에서 바람직하다는 항목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5) 거주기간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

관광영향의 지각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한 주민과 이후에 거주한 주

민(1971년부터 거주한 주민)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고 국립공원 지정 전후 거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관광영향 지각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주민만 소득 올림"과 "대중교통 늘어나 이동이 편리해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원 내에 거주한 주민들은 "일부지역 주민만 소득을 올린다"는 점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백담·오색·장수대 지구 거주자가 25명이며 설악동 지구 거주자는 15명으로 이들 중 37.5%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업(25%)이나 기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국립공원 지정 이후 거주자들은 설악동 거주자가 전체의 73.2%이며, 상업 종사 비율이 49.1%로 거의 반수에 달한다. 그러므로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이 그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소득이 적으며 일부 지역주민만 관광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은 관광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늘어나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점을 더 크게 지각하였는데, 설악산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교통수단이 늘어났으므로 그 이전의 불편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하였던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이 늘어나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각이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설악산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설악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전을 위한 관광객 수 제한 방안에 반대하고 추가의 관광개발을 선호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관광산업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국립공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있어 국립공원은 보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자연지역으로보다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 할 수 있다. 국립공원이 올바르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취락지구나 집단시설지구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국립공원의 보전을 이룰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권리 역시 배려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공원 경계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갖가지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공원 구역 내에 거주지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국립공원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관광으로 인해 유발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민의 지각을 조사한 결과, 설악산 지역주민은 관광객과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 중 환경적 편익보다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더 지각

하는 반면,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각하였는데, 긍정적, 부정적인 지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기존의 세분화접근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였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이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도 크게 지각하였다. 반면 노년층은 환경적 편익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을 관광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학력이 높을 뿐 아니라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주체이므로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각하면서도 편익 역시 지각하였으며, 이와 달리 노년층은 개발 이전의 불편한 이동 환경을 경험하였으므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개발이 심화되면서 점차 도로가 개설되고 교통이 편리해진 사실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령층에 의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한 지각 차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직업이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경제적 관광영향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동일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도 관광개발의 정도가 심화된 설악동 지역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해 받는 편익만큼 그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세분화 접근뿐 아니라 사회교환이론 측면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소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개발은 여전히 환영의 대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편익을 그다지 지각하지 못하는 설악동 외 지역주민들 역시 관광객 수 제한을 반대하고 집중적인 관광개발을 선호하는 것은 관광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설악동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편익 외에 다른 부정적인 관광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면서도 기타 지역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추가의 관광개발을 필요로 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피해보다는 이익을 주는 존재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관광영향은 편익 특히 경제적 편익으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거의 30년에 이르지만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개발 수준이 지역사회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벗어나지 않았음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항상 변할 수 있는 지각 결과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광개발 계획수립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론 관광이 이루어지는 대상지가 국립공원이라는 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완전히 혹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개념과 관리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정적인 관광영향지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편익 증대를 위해 더 집중적인 관광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용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각 차이는 차별화된 관리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모든 지역이 그리고 모든 지역주민이 동일한 관광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혹은 설득이 필요할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혹은 이용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과 관리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환경교육 역시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국립공원 지역 관광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립공원 경계내는 물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관광영향 하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관광영향을 줄이는 한편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대안 수립이 바람직한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이 공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비수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성수기에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이 이미 관광영향에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태도나 영향에 대한 지각은 직접적으로 관광영향 하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조사시기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주요 대표소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관광영향에 대한 이들의 지각은 상대적으로 공원 대표소에서 먼 곳에 거주하여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는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크게 지각하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염려하며 30년 가까이 반대운동을 펼쳐온 주민들도 있음이 연구 결과 적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이상에서 밝힌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 용 문 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 1997. 공원 내 용도지구별 거주 주민현황 자료.
2. 임경빈·김용식·전승훈·김선희·김휘. 1994. 덕유산 국립공원내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보전실태. *응용생태연구*, 7(2) : 112-117.
3. 한병선. 1995. 관광영향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 *관광지리학*, 5 : 203-220.
4. Allen, L.R., H.R. Hafer, P.T. Long, and R.R. Perdue. 1993.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4) : 27-33.
5. Allen, L.R., P.T. Long, R.R. Perdue, and S. Keiselbach. 1988. The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1) : 16-21.
6. Ap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 665-690.
7. Bastias-Perez, P. and T. Var. 1995. Perceived impacts of tourism by resid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 208-210.
8. Belisle, F.J. and D.R. Hoy. 1980. The perceived impact of tourism by residents : A